

韓-파나마, 폐기물 관리에 맞손... 중남미 진출 '교두보' 구축

순환경제 협력 양해각서 체결
파나마시티 현지 매립장 개선 모색
신규 매립시설 마련 등 방안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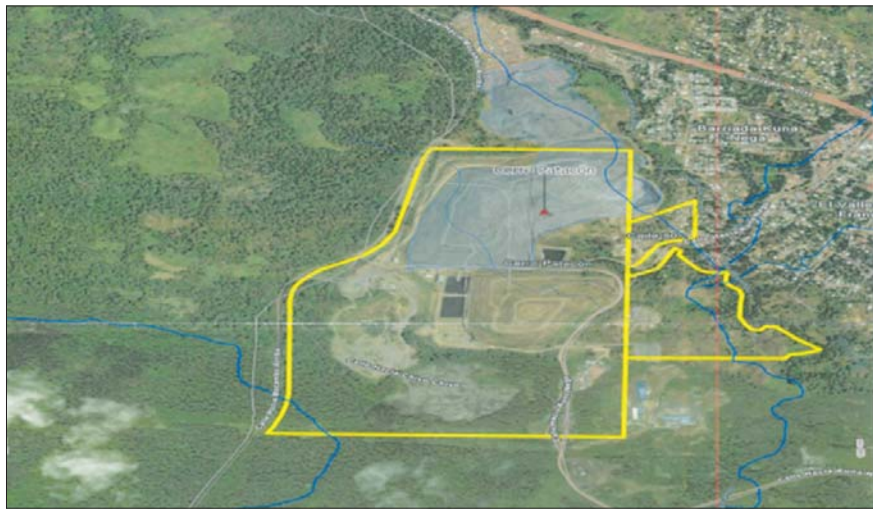
우리 정부가 파나마 현지 '폐기물 분야 환경관리'에 관한 협약을 시작으로 매립지 개선 부문 등의 중남미 시장 개척에 나선다.

환경부는 1일 파나마 파나마시티 현지에서 녹색산업 협력단(해외 환경난제 현지진단팀)을 과견(현지시간 4월 1~3일)해, 한국-파나마 환경부간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MOU 체결 후 양국의 협력사업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국내 녹색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최근 수도 파나마시티 인근의 '세로파타콘' 매립장에서 대규모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폐기물 분야 환경관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이에 우리나라의 선진 매립시설 관리 및 재활용 경험을 함께 논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로파타콘매립장의 주요문제점은 △복도불량(폐기물 노출 및 다짐불량)을 비롯해 △매립가스 포집정 불량(개수 및 상태불량) △매립사면 불량(급경사 및 폐기물 노출) △침출수로 유출 등 비위생 등이다. 화재 반복으로 파나마 정부가 지난해 4월 환경비상상태를



파나마 파나마시티 인근에 자리한 '세로파타콘 매립장'.

/환경부

선포한 바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주파나마 한국대사관을 통한 초청을 통해, 환경부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대표단이 파나마 현지를 방문한 바 있다. 세로파타콘 매립장 현안 등 협력수요를 확인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협력의 물꼬를 트는 동시에, 같은 해 7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나마 공식방문 시에 대해 논의하는 등 양국의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분야 협력을 구체화해 왔다.

1일(현지시간) 파나마 환경부 청사에서 체결하는 협약으로 파나마의 폐기물 관리·재활용, 에너지화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정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내 녹색산업의 파나마 진출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2일에는 파나마 도시·주택위생청(AUD) 청사에서 도시·주택위생청 및

환경부 관계자들과 협력회의를 열고, 현지 매립장 환경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협력수요로 발굴된 세로 파타콘 매립장 관리문제 개선을 위한 신규 매립시설 마련 및 기존 매립환경 안정화 등 대안을 모색한다.

환경부는 올해 목표로 설정한 22조 원, 임기 내 100조 원의 수출·수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수주 지원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정부 간 협력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이 진출 가능한 해외 환경난제 기반의 유망 사업 발굴을 추진한다.

정환진 환경부 글로벌탄색산업추진단장은 "파나마는 북미와 남미, 그리고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며 "녹색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교두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2월 설 대목에 온라인쇼핑 11% 늘어난 19조

상품군별, 농축수산물 증가폭 48%

올해 2월 농축수산물 부문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년 전보다 50% 가까이 늘어났다. 설 명절 맞이 대규모 할인행사 등의 영향이다. 또 여행·교통이 20% 이상 증가하는 등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전년동월 대비 크게 늘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4년 2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동월 대비 11.0%(1조8856억 원) 증가한 18조 9766억 원으로 집계됐다.

상품군별로, 특히 농축수산물 증가폭이 48.9%(3572억 원)로 가장 컸다. 이는 2021년 1월(63.8%) 이후 37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설 연휴 해외여행이 늘면서 여행 및 교통서비스도 21.6%(3801억 원) 증가

했다. 2월 기준 여행 및 교통서비스 2조 1369억 원이었다. 총 온라인쇼핑 거래액에서 가장 높은 비중(13.6%)을 차지하는 음·식료품 거래액도 전년동월 대비 20.9%(4451억 원) 늘어난 2조5787억 원에 달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2월은 다른 달에 비해 날짜 수가 적어 거래 규모 자체는 다른 달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이라면서도 "전년동기 대비로 보면 명절과 연관이 있는 상품군들이 전년 대비 증가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통신기기는 21.7%(1536억 원) 줄었고, 화장품 거래액도 11.7%(1275억 원) 감소했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3.6%)이 가장 컸고, 이어 여행 및 교통서비스(11.3%), 음식서비스(10.9%)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김연세 기자

통계청, 지방소멸 대응·균형발전 강화

지역통계 활용 강화 등에 업무협약

통계청과 지방시대위원회가 1일 세종에서 '지역통계 활용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지방주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근거기반 의사결정 수단인 '지역통계 확충 및 활용 강화 추진'을 위한 상호 긴밀한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분산된 다양한 지역통계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류·관리하게 된다. 이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근거기반정책결정을 지원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국정과제 120번(지방소멸방지 및 균형발전 추진 체계 강화)에 포함된 균형발전지표의 지속적 발전과 활용도를 제고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지방시대위원회와의 협약은 지역단위 통계의 활용성을 높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각 지방정부의 지역통계 활용 우수 사례의 공유·확산, 균형발전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선 공동연구 등 통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국·탕·찌개도 고령자친화식품으로 지정

농식품부, 34개사 176개 제품
고령자 모두 위한 보편식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그간 '고령친화 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운영해 34개 기업 176개 제품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식품은 고령자의 섭취, 영양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형태·성분 등을 조정해 제조하고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을 말한다. 올해 범위를 국과 탕, 찌개류까지 확대한다.

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친화산업 중 식품 분야를 유망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용 식품 위주로 개발돼 온 고령식품을 고령자 모두를 위한 보편식으로 확대했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운영해 지난해 말 기준 대기업 5개사(35제품), 중견기업 5개사(45제품), 중소기업 24개사(96제



정부세종청사 내 농식품부 전경.

/메트로

품)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했다.

제품의 경도·점도, 영양성분, 고령자 배려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물성에 따라 3단계(1단계 치아 섭취 가능, 2단계 잇몸 섭취 가능, 3단계 혀로 섭취 가능)로 구분한다. 우수식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유통 시 우수식품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1단계 90개, 2

단계 12개, 3단계 74개이며, 섭취유형은 반찬류(102개), 죽류(51개)가 비중이 크다.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지난해 실증사업을 벌였다. 그 결과, 고령친화우수식품을 활용한 고령친화식단 제공이 고령자의 영양 및 건강 상태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 65세 이상 고령자 180명을 대상으로 고령친화식단을 5개월간 제공한 결과, 대상자의 영양불량 비율이 11.7%에서 6.5%로 줄었고, 혈당·총콜레스테롤·중성지방이 감소했다.

정부는 고령자의 음식 섭취 관련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올해부터 기존 3단계 제품에만 적용하던 점도 기준을 제품 특성에 따라 1, 2단계 제품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국·탕·찌개류 등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어촌공사, 저수용량 키워 집중호우 대응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 저수지 준설사업'을 1년 전보다 확대해 재해 대응능력 강화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뭄·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저수지 준설사업'은 저수지에 유입된 토사의 퇴적물을 파내어 저수용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충분한 저수용량을 확보해 가뭄을 해소함과 동시에 홍수 대응 능력을 끌어올린다.

농어촌공사는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 3429개소 중 30년 이상된 시설이 88%에 해당하는 3024개소로 노후화돼 있다"며 "장기간 토사 퇴적으로 물그릇이 작아져 집중호우, 태풍 등 재해 대응 능력이 약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폴리텍대 협약반, 취업률 100% 육박

채용 기업 특화 교육훈련·우선 채용

기업과 맞춤형 교육을 통해 100%에 가까운 취업률을 기록하는 한국폴리텍대학 협약반이 청년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1일 한국폴리텍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 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 원익큐엔씨 협약반 수료생 취업률은 각각 97.1%, 98.7%에 이른다.

협약반은 채용 예정 기업의 인력 수요와 직무 분석에 기반해 특화 교육훈련을 하고, 기업은 참여 학생을 우선 채용하는 프로그램이다.

하나금융그룹 정보기술 계열사 하나금융티아이와 협약을 통해 광명융합기술교육원에 하이테크과정을 개설한 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은 누적 수료생 102명 중 87명이 하나금융티아이에 입사했고, 다른 훈련생들도 취업시 까지 밀착 지원해 전체 99명(97.1%)이 금융

권 정보기술 직군으로 진출했다.

특히 전체 수료생 중 56.9%에 이르는 비전공자도 협약반을 통해 새 진로를 찾았다. 폴리텍대 관계자는 "현장 경험이 많은 교수진이 기업에서 실제 사용하는 장비를 활용해 10개월 내 1200시간 집중훈련을 한다"며 "비전공자도 금융 정보기술 개발자로 탈바꿈할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은 업계 등용문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모집경쟁률도 크게 뛰었다. 2022년 10.7대 1, 2023년 19.2대 1에 이어, 올해 20명 모집에 528명이 지원해 26.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폴리텍대 포항캠퍼스 원익큐엔씨 협약반은 반도체 퀵트레이너(반도체 제조 공정 소모성 부품) 생산 점유율 세계 1위 기업 원익큐엔씨와 협약해 맞춤형 인재를 키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